

“다종교사회와 천도교 교역자 양성”에 대한 논평

안 권 순

(한서대학교)

우선 천도교에 문외한인 제가 노태구교수의 논문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천도교에 대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읽고 느낀점을 미력하나마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태구 교수는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종교는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인간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면 건전한 종교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또는 수단’이라는 종교와 교육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종교의 올바른 가르침, 종교의 지식, 의례 등에 관한 교양을 비롯하여 종교적 정서를 함양하고 종교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종교교육이라 하였다.

천도교에서는 교육 이념의 원리로 ‘가르친다’라는 용어로 ‘종교성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천도교에서는 가르치고자하는 교육의 이념은 교조인 수운 최제우의 핵심사상인 시천주(侍天主)사상에 입각하여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천도교의 교육 이념의 원리는 첫째 시천주 사상이다. 천도교의 핵심은 한울님(天)의 사상이다. 천도교는 한울님 그 신앙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시천주라 표현하고 그 밑바탕에는 인간중심의 교육사상과 평등의 인간관계를 가르쳐준다.

둘째는 人乃天 사상이다. ‘사람이 곧 天人이란 天이 만물을 化生하고 그 뜻을 사람의 형체에 맡겨 뜻대로 만물을 쓰게한 것을 뜻한다’라는 사상으로 인간의 고귀한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불의와 부정의 역

사를 막기 위하여 앞장선 우리나라의 독특한 휴머니즘이다.

세째는 개혁사상이다. 개혁이란 암흑과 혼돈에서 천지가 처음 생긴다는 뜻을 가지는데, 역사를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고 낡은 선천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후천의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개혁을 민중속에서 동학혁명으로 전개되었다.

네째는 보국안민사상이다. 수운 최제우의 국가관, 민족관과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려는 사상으로 외세침략을 배격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내세우고, 민생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함으로서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념이다.

천도교에서는 교육의 목적은 그 종교가 지니고 있는 宗旨를 가르치는데 있으며, 修道를 통해 기초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는 진리탐구, 마음을 닦는 일, 한울님 모심을 깨닫고 천일합일의 인격완성, 장생불사, 만사여의의 힘을 기르는 일, 성·경·신을 체행하는 일,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및 지상 천국 건설 대업 성취이다. 교육내용과 방법으로는 주문의 암송을 통한 정신집중과 일체화, 그 종교가 요구하는 제반 규율을 준수하는 생활상의 정진이나 정화가 요청되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한울님을 믿는 마음이 투철하고 성품과 성심을 분별할 줄 아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교역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1) 무극대도에 대한 올바른 이행과 신념
- 2) 시천주 신앙의 확립 및 기도와 수련의 생활화
- 3) 원만 무결하고 진실과 능력이 겸비한 인격완성
- 4) 화합의 선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토론자는 노태구 교수의 논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반적인 지도자(교역자) 교육에 필요한 몇가지만 첨언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교역자에 대한 바람직한 지도자 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도자의 인격적, 능력적 자질이나 천도교 종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교역자들로 하여금 무극대도의 본질을 옳게 깨닫고, 시천주 신앙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데 모범이되고 인격이 완성되고 미래에 화합을 선구할 수 있는 지도자 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천도교에서 필요로하는 지도자 유형이다. 가령 민주적인 지도자는 타협

과 색관의 조정을 가지고 유연성과 극단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지도자는 정신적 지주로 종교간 화합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유형이 필요한 것이다.

세째는 자아완성을 추구하는 교역자를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천도교에서는 사람마다 자아완성을 추구하고 나라마다 보국안민하여 이 땅에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을 한울님의 뜻이라 하였다. 이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자아완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진하는 생활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네째는 생명존중의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천지는 곧 부모요 부모는 곧 천지니 천지부모는 일체라 하였다. 따라서 한울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에 대한 존중,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끝으로 예의범절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천도교에서는 대인접물이라 하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과 만나고 사물과 접촉하며 더 붙어 살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즉, 천도교에서는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인간존중과 인간평등의 정신에 바탕을 둔 예의 범절을 실천하고 지킬 주 아는 지도자가 필요로 하다는 점이다.